

2017년 1,2,3월 뜨루히요 선교 편지

<이상기, 김성희 선교사 가족 드림>

leesanggiiperu@hotmail.com , sungheekimperu@hotmail.com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장유대성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함으로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약 오개월 반의 안식년을 잘 마치고 3월 말 뜨루히요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안식년을 마칠 즈음 페루 북부지역에 홍수가 시작되어 저희가 페루에 도착했을 때에는 안데스 산맥의 산사태로 흙탕물들이 뜨루히요 시내를 일곱 번이나 관통하고 또 사막지대인 뜨루히요에 니노 현상으로 인하여 두 번의 소낙비가 내려 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뜨루히요 지역이 생활용수가 단수되고 생활용품 공급이 끊어지고 일부 지역은 물에 잠기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은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었고 부분적으로 많은 비로 인한 건물에 곰팡이가 핀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빈민 지역인 밀라그로 지역은 집 벽이 흩돌담으로 되어 있는 성도님 두 가정의 집이 무너졌고 컴패션 어린이들 열 여섯 가정이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컴패션의 경제적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용품 지원과 임시복구를 한 상태이고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뜨루히요는 일반적으로 약 15년에서 20년에 한 번씩 니노 현상으로 인한 홍수로 고생을 합니다. 지난 1998년에 있었던 홍수 피해 때는 루스 데 글로리아 형제들과 함께 약 이 주간 매일 아침을 준비하여 수재민들을 도왔고 그로 인하여 밀라그로 루스 데 아모르 교회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안식년을 마치고 페루로 오는 과정 중에 모든 일이 일어났고 뜨루히요에 도착 했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인터넷으로 성도님들과 연락하고 함께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모습들을 대할 수 있어 함께 하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성도님들의 성숙함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형제의 집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인터넷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님, 처음엔 너무 무섭고 두려워 어떻게 할 지 몰랐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제 마음도 더 강해집니다. 걱정 마세요. 선교사님 부부가 무사히 돌아 올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 왔습니다. 또 루스 데 페 교회를 맡고 있는 제펠슨 전도사는 “어려운 때에 함께 하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는 저희 전화에 “선교사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중 안데스 산맥에서 내려온 흙탕물들로 집으로 가는 길이 끊어져 교회에서 자고 내일 집으로 가려 합니다. 집에 있는 동생이 걱정 되지만 해야 할 일을 했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 걱정 마시고 선교사님 부부는 계획한 대로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시고 페루로 돌아오세요. 그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고 있겠습니다.”라며 답을 합니다. 에스페란사 지역의 루스 데 글로리아 교회와 함께 어려운 지역인 밀라그로의 루스 데 아모르 교회 성도님들도 홍수가 그친 후 도리어 비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교회에서 헌 옷 가지와 식수 등을 모아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도와주며 기뻐하는 모습을 대하며 그들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이데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마음이 참 부자기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저희는 어려움의 때에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안길태 선교사님 가정을 뜨루히요로 미리 보내셔서 홍수에 대해 미리 방비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루스 데 페 교회 성도님들의 필요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하나 되게 하심을 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약 오 개월 반의 안식년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의 시간들을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약 이십 이년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저희로 사역의 터를 닦고 기초를 세우는데 마음을 쏟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루스 데 글로리아, 루스 데 아모르, 루스 데 페, 루스 데 그라시아, 루스 데 에스페란사 교회가 그리스도 안의 한 공동체로 뜨루히요를 복음화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상기 선교사, 안길태 선교사, 세군도 목사, 가브리엘 목사 그리고 제펠슨 교육 전도사, 막스 교육 전도사, 헨리 교육 전도사, 월슨 교육 전도사가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늘 영으로 깨어 있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너진 루이스 형제 집의 흠벽 일부 >



<임시로 집을 복구하고 나서...>



<임시로 비닐 피해 덮어 놓은 비닐 재봉의 대체 방법을 함께 익히며 >

루이스 형제는 열명의 식구가 두 방에서 함께 생활 합니다. 부분적으로 무너진 벽을 복구하고 지붕을 비닐로 덮었지만 보다 나은 해결책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루스 자매와 막내 아들인 갠>



<아직도 비가 오면 대책이 없는 루스 자매 방>



<루스 자매가 입고 있던 생경책>

저희가 루스 자매집을 방문했을 때 자매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팔 여년 전 어린 세 아들을 데리고 남편에게 버린 받은 상태에서 갈 곳이 없어 너무 비참한 상태에서 저희 교회를 찾았던 자매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두 아들을 마약이나 갠단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머리 돌 곳도 만들어 주셨습니다.이 번 홍수로 지붕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매는 도리어 "선교사님, 저희 가족이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제 무릎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 주셨습니다." 라며 홍수 피해를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저희가 도리어 속연하여졌습니다.



늘 사랑은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거의 밤 열 두시경 집에 도착한 저희 부부를 가까이 사시는 루스 데 페 성도님들이 깜짝 환영식으로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안식년기간 동안 매 주일 장유 대성 교회 공예배 시간에 저희 선교사와 페루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애 늘 가슴 먹먹하고 감사하였는데...저희는 참 행복한 선교사 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교제는 정말 국경이 없습니다.

*****기도제목 *****

1. 뜨루히요에서 동역을 시작한 안길태, 박지원 선교사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되어 말기신 사역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루스 데 페 교회에 두 명의 여자 예비 장로가 선출되었습니다. 장로고시를 앞두고 있는 로사 자매와 마를레네 자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충성된 중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루스 데 그라시아 교회와 루스 데 페 교회의 모든 서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도움 자들을 보내셔서 잘 정리되어 지도록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4. 4월에 있을 페루 장로교 노회가 처음으로 루스 데 페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초 페루 뜨루히요에서 이상기, 김성희 선교사 드림.